

〈特別寄稿〉

## 陰陽合德의 理解

학교법인 대진대학교 이사장 鄭大珍

## 目次

- |                  |               |
|------------------|---------------|
| I. 머리말           | 2. 인간고통의 문제   |
| II. 음양합덕의 이론적 기초 | IV. 음양합덕의 실현  |
| 1. 음(陰)과 양(陽)    | 1. 상극에서 상생으로  |
| 2. 음양의 관계와 음양합덕  | 2. 인존(人尊)의 실현 |
| III. 음양합덕의 필요성   | V. 맺음말        |
| 1. 선천의 상극적 현실    |               |

## I. 머리말

하나의 종교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종교가 주창하는 사상적 이념으로서의 종지(宗旨)와 목적(目的)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신조(信條)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 가운데에서 종지는 그 종교사상을 집약하고 함축하여 나타낸 것으로 한 종교의 중심개념을 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의 종교사상을 연구하는데 있어 출발은 항상 종지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사상적인 골격은 종지를 토대로 하여 구성될 수 있다고 본다.

기존의 세계종교는 저마다의 종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수많은 발전을 거듭해왔다. 하지만 아직도 그 종교가 지향하는 이념을 다 달성하지 못한 것은 다변화된 현실사회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시대를 초월할 수 있는 전 우주적인 진리를 밝히지 못한데서

기인한다고 보겠다. 다시말하면 역대의 종교가들은 모두 인간이 처한 현실적 한계(죽음, 질병의 문제등)를 인식하고 내세(來世)의 삶을 강조하여 고통에 허덕이는 인류에게 위안을 주었으며 또는 아예 내세를 말하지 않고 현실만을 강조하여 현실에서만 만족을 찾게 하였다. 그렇게 하므로서 종교는 흔히 현실도피의 경향을 띄거나 혹은 물질문명과의 대립으로 그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아무런 뚜렷한 결과를 낳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종교적 난립만 가중되어서 종교간의 분쟁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오늘날 종교는 인류에게 어떠한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인가. 말할 것도 없이 진정한 진리는 인간이 처한 우주적인 환경을 개선하고 영원한 평화와 복락을 누리는 세계가 현실에 실제로 도래(到來)할 것을 말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대순사상의 종지는 인류에게 영원한 평화를 가져다 주고 상서가 무르녹는 지상선경을 이끌어 가는 선도적인 이념으로 제시될 수 있다.

이러한 종지가 주창되게 된 배경은 먼저 역대 신성·불·보살들의 청원으로 삼계를 대순하신 구천상제께서 인세에 강세하신데서부터 비롯하며, 이후 구천상제로 부터 그 종통을 계승한 조정산 도주께서 대순진리에 대한 통찰을 하면서 이루어져 나온 것이다. 따라서 대순진리의 종지는 오늘날의 인류가 당면한 현실적인 고통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나아가서 내일의 인류가 맞이하고 살아가야만 하는 이상세계의 생활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대순종지에 대한 연구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오늘날 실천수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그 개념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요구된다 하겠다.

대순종지는 크게 네가지로 나누어 표방되고 있는데 음양합덕(陰陽合德)·신인조화(神人調化)·해원상생(解冤相生)·도통진경(道通眞境)이 그것이다. 모두가 고유한 개념을 지니면서 대순진리의 핵심을 담고 있다. 이 중에서 본고는 특히 음양합덕에 대한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II. 음양합덕의 이론적 기초

### 1. 음(陰)과 양(陽)

음과 양에 대한 본래의 의미는 문자학상으로 볼 때 「태양의 빛남」과 「태양이 구름에 가리워짐」을 뜻한 것이다. 뒤에 阜(β)가 보태어짐으로서 양은 「산측(山側)의 햇빛이 비추어지는 곳」, 음은 「햇빛이 비치는 반대편 산측의 그늘진 곳」이라는 의미로 정착되었다. 이렇게 본다면 음양이란 하나의 사물이 지니는 두가지 측면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현실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음과 양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것이며, 동일한 존재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한 하나의 분석틀로서 쓰일 수 있다는 말이다. 이후 음양의 개념은 현실의 모든 사물을 음양으로 나누어 보는데까지 이르렀으며 현실의 존재양상을 규정짓는 말로 이해되고 있다.

음과 양에 대해서 구체적 사물을 예로 들어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하나의 사물로서 말하면 손바닥은 음 손등은 양, 서책의 표지는 양 내면은 음, 청천(晴天)은 양 우천(雨天)은 음이며, 서로 다른 사물로서 말하면 하늘은 양 땅은 음, 해는 양 달은 음, 남자는 양 여자는 음인 것과 같다. 그리하여 어느 것하나 음양아닌 것이 없으며 모든 사물에서 음과 양의 요소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음양개념의 보편성이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은 음과 양의 관계이며, 이 관계는 마치 수(水)·화(火)처럼 서로 그 성질을 극단적으로 달리한다고 해서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로 보고자 하는데 있다. 이것은 이른바 '대대관계(對待關係)'라고 하는 원리로 설명될 수 있으며 이 관점에서 음양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또한 음양이론의 주요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2. 음·양의 관계와 음양합덕

앞서 말한 음양의 이론에 있어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음과 양의 관계이다. 즉 음과 양의 관계라는 것이 서로 극단적으로 성질을

달리한다고 해서 상호 대립하고 서로를 적대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관계 또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로 보고자 하는데 음양이론의 특성이 있다. 여기서 주장되는 음양관계의 대표적이론으로서 대대성(對待性)의 원리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서로 대립하면서도 의존하는 관계」 「서로가 서로를 품은 관계」를 말한다. 이는 마치 남녀에 있어서 부부사이와도 같다고 할 수 있다. 서로의 체질과 성격이 틀리다 할 지라도 하나의 가정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며 또한 어느 한 쪽의 장단점이 상대에게 있어서 보완이 되며 그리하여 어느 한 쪽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을 같이 만나서 하므로써 목적인 일을 이루어 내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따라서 어느 일방의 의사도 무시해서는 안되며 상대의 의사를 존중하고 각자의 장점을 교류해 나가는 것은 음양의 관계를 제대로 파악할 때만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남녀의 불평등을 조장하고 노사간의 대립 그리고 종교와 과학의 대립 나아가서 동양과 서양의 대립으로 까지 치달는 투쟁의 양상은 모두가 음양의 관계를 대립과 투쟁의 관계로 보는데서 기인한다고 하겠다. 나와 체질이 틀리다고 해서 불신하며 무시하는 태도는 급기야는 사회 구성원들간의 대립과 투쟁을 야기시켰고, 동·서양의 문화적인 충격에서 이를 해결하지 못해 극단으로 치달는 태도등, 모두 음양의 관계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음과 양이 서로 만나서 조화를 이루고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며 장점을 발휘해 나가는 것이야 말로 이 세계에 영원한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대원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인류의 복된 삶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사고방식이 되어야 하리라 본다. 이것은 또 음양합덕이라는 말이 음양의 관계를 보다 잘 이해하고 이어서 그 진정한 음과 양의 덕이 합하여 이루어내는 이상적인 경지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음양합덕이라는 말은 동양고전인 『주역』에서도 그 개념이 설명되고 있다. 주역에 보면

「건곤은 역(易)의 문이다. 건은 양의 사물이요 곤은 음의 사물이다. 음과 양이 덕을 합하여 강한 것과 부드러운 것에 본체가 있게 된다. 그것으로서 천지의 일에 본체로 삼고 신명의 덕을 통하게 되니 그 이름을 일컨

는 것이 잡다하여 벗어나지 않으나 그 종류를 고찰하는 것에 있어서는 쇠퇴한 세상의 뜻일 것이다.」(乾坤, 其易之門邪, 乾, 陽物也, 坤, 陰物也, 陰陽合德, 以剛柔有體, 以體天地之撰, 以通神明之德, 其稱名也, 雜而不越, 於稽其類, 其衰世之意也, 『周易』, 계사전)

라고 하여 음양합덕이야말로 천지변화의 본체가 되며 삼라만상을 나오게 한 원동력이 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리하여 음양합덕의 산물을 이루다 해야 할 수 없으며 무한한 창조와 변화 발전하는 세계의 다양한 현상은 모두 음양합덕에서 그 기원을 찾아야 됨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음양합덕의 이론적 기초위에서 대순종지로서의 음양합덕이 지니는 의의는 어떤 것인가. 그것은 오늘날의 세계가 진정한 음양합덕이 이루어지지 않은데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며 나아가 음양합덕이 이루어 지므로서 맞이하게 되는 바람직한 이상사회의 모습을 설명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전경』을 참고하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 Ⅲ. 음양합덕의 필요성

#### 1. 선천의 상극적 현실

현대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지구가 생긴 역사는 약 47억년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본래는 없다가 생겨난 것으로 어떻게 생겨났는가에 대해서는 서양에는 진화론으로, 중국의 역사에는 반고씨 신화로서 설명한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의 철학자 소강절의 계산법에 따르면 원·회·운·세(元會運世)의 주기로서 설명된다. 이 때 하나의 원(元)은 우주의 큰 주기로서 12만 9천 6백년에 해당된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는 약 12만여년이라고 한다. 말하자면 일원(一元)이 다 간 셈이다. 앞으로 21세기는 인류사에 있어서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하는 중대한 시기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전의 역사는 어떠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

인간문화(人文)의 역사를 따져보면 만년(萬年)도 채 안됨을 알 수 있다. 중

국의 황제 헌원씨가 황제로 등극한 지는 지금으로부터 약 5천년전에 해당되며 이때 비로소 문자가 나왔으므로 이전에는 문화를 논할 수 없다. 그리고 석가공자·예수와 같은 성현들이 모두 이 5천년안에 다 오셨으므로 인류의 바람직한 삶의 역사는 불과 3천 내지 2천 5백년 이내밖에 안된다. 그런데 그 성현들과 명현들의 말에 의하면 이 지구에 태어난 사람은 모두가 천상(天上)에서 죄를 범하여 그 죄의 댓가를 치르기 위하여 이 지구촌에 태어났다고 한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항상 시기 질투와 음해, 모략등 각종의 악의 씨앗이 잠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현실에서 인간은 저마다 원한이 쌓이고 맺혀 천지에 가득차게 되었으니 이른바 '상극(相克)'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될 수 있다. 『전경』에서는 이러한 '상극'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상제께서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로부터 원을 풀어야 하느니라. 먼저 도수를 굳건히 하여 조화하면 그것이 기틀이 되어 인사가 저절로 이룩될 것이니라. 이것이 곧 삼계공사(三界公事)이니라」 고 김형렬에게 말씀하시고 그중의 명부공사(冥府公事)의 일부를 착수하셨도다. (공사 1장 3절)

선천(先天)은 우리 인류가 살아온 현재까지의 역사를 말한다. 그리고 이 선천세상은 상극의 원리에 지배되어 세상에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天界·地界·人界)를 채워 세상이 참혹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구천에 계시던 상제께서 천지개벽이후에 비로소 처음으로 인세(人世)에 오시게 되었던 것이며, 천지공사를 통해 이러한 상극적 현실을 해소하므로서 무한한 극락세계(極樂世界)를 건설코자 하셨던 것이다.

상극(相克)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선악(善惡)이 공존(共存)하는 현실에서 서로 극해(剋害)하는 원리를 말하며, 상생(相生)이란 오로지 선한 마음으로 상대를 위해 잘되게끔 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현실의 모든 사물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의 두가지가 항상 병행하여 대립하고 있음을 볼 수 있

다. 하늘을 보면 맑은 하늘과 흐린 하늘, 아주 추운 날씨와 아주 더운 날씨, 홍수와 가뭄이 있고 땅에는 기름진 땅과 척박한 땅, 평야지대와 산악지대, 식용버섯과 독버섯등이 있으며 심지어는 바다 색깔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마음이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있을 것이며 타고난 운명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평생을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평생을 불운하게 살다가는 사람도 있다. 이것은 모두 이 세상이 상극이라고 하는 원리에 의해 구성되다 보니 선한 바탕속에서도 항상 악의 기운이 감돌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리하여 선한 기운과 악한 기운이 번갈아 교차하면서 그 바탕속에서 이 세상 모든 사물은 선악으로 나뉘어 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람도 태어날 때 마침 선한 상생의 기운이 감도는 것을 맞이하게 되면 아주 좋은 운명을 맞이하겠지만 반대로 악한 상극의 기운이 감돌 때 태어난 사람은 아주 불운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또 사람이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자연의 재해를 당하고 사람을 해치는 동물이나 곤충들로부터 습격을 받는 것, 사람과 사람사이에서도 서로 전쟁을 일으키고 살인을 저지르는 것, 문명의 이기에 의해 사람이 도리어 해를 입는 것등은 모두 상극의 원리 때문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게 되는 것은 상극적인 원리에 의해 이루어진 세상의 결과를 인간이 그대로 맞이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상제께서는 이러한 상극적 시비가 없는 것으로 천지공사를 단행하셨던 것이다. 다음의 전경구절을 보면

상제께서 가라사대 「만고 역신을 해원하여 모두 성수(星宿)로 붙여 보내리라. 만물이 다 시비가 있되 오직 성수는 시비가 없음이라. 원래 역신은 포부를 이루지 못한 자이므로 원한이 천지에 가득하였거늘 세상 사람은 도리어 그 일을 밍게 보아 흉악의 머리를 삼아 욕설로 역적놈이라 명칭을 붙였나니 모든 역신은 이것을 크게 싫어하므로 만물 중에 시비가 없는 성수로 보낼 수 밖에 없나니라. 하늘도 노천(老天)과 명천(明天)의 시비가 있으며 땅도 후박의 시비가 있고 날도 수한의 시비가 있으며 바람도 순역의 시비가 있고 때도 한서의 시비가 있으나 오직 성수는 시비와 상극이 없나니라」 하셨도다. (교법 3장 6절)

라고 하여 선천은 노천과 명천, 옥토와 박토, 바람의 순역, 한서의 시비가

있는 세상임을 알 수 있다. 즉 상극적인 현실을 말해주고 있다. 만고역신도 이러한 상극세상에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이를 해원하기 위하여 시비가 없는 성수로 보내야만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처럼 선천의 상극적 현실은 그 발전과정에 있어서 인간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해악(害惡)을 끼쳐왔던 것이며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의 행태(行態)와 전쟁 질병등으로 인해 급기야는 진멸할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문명의 이기라고 여겨지는 것도 그 이면에는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도사리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다름아닌 인간의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욕심으로 인해 생겨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천하 창생이 진멸할 지경에 닥쳤음에도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오직 재리에만 눈이 어두우니 어찌 애석하지 않으리오.(교법 1장 1절)

여기에 음양합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필요성이 있으니 말하자면 선천은 음양이 서로 합덕(合德)이 되지 못하여 항상 서로 음해하고 시기하며 질투가 있었던 것이며, 자연도 음양합덕을 이루지 못하여 인간에게 불완전한 해악을 끼치게 되었다. 선천의 상극적 현실은 음양합덕이 이루어 지지 못한 불완전한 세계였던 것이다.

상제께서 「선천에서 삼상(三相)의 탓으로 음양이 고르지 못하다」고 하시면서 「거주성명 서신사명 좌상 우상 팔판 십 이백 현감 현령 황극 후비소(居住姓名西神司命 左相右相八判十二伯 縣監縣令皇極後妃所)」라 써서 광찬에게 「약방의 문지방에 맞추어 보라」고 이르시니라. 그가 「맞지 않는다」고 아뢰니 「일이 헛 일이라」고 말씀하시기에 경학이 「여백을 오려버리고 글자 쓴 곳만 대여보는 것이 옳겠나이다」고 말하기에 그대로 행하니 꼭 맞으니라.(공사 2장 20절)

음양이 고르지 못하다는 것은 곧 음양이 합덕될 수 없었다는 것이며, 이로써 모든 재해가 생겨난 것이니 상제의 천지공사에 의해서만 음양이 합덕되는 세상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다시는 상극적인 현실이 아닌 반대로 상생을 이루어 내는 것이 음양합덕의 길이라 하겠다.

## 2. 인간고통의 문제

음양합덕이 되지 못하여서 만들어낸 선천의 상극적인 현실은 인간에게 고통의 문제만을 야기시켰다고 볼 수 있다. 흔히 성현들은 말하기를 이 세상은 고해(苦海)의 바다라고 한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어야만 하는 운명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이며,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종교를 찾게 되었다. 그리하여 종교는 인간에게 내세관(來世觀)을 통하여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려 하였고 여기서 위안을 찾은 사람은 내세의 새로운 삶을 위하여 그 종교를 신앙하고 지켜나가게 된다. 하지만 그러한 내세관에 입각한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현실의 삶에서 가치를 찾으려 하게 되고 그러다가 쾌락주의로 흐르는 경향을 보게 된다.

이상의 두가지 경향은 모두 인간이 처한 현실의 한계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인간적 노력에 다름아닌데 여기에 인간의 현실적 고통의 문제를 직시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 첫째는 인간이 본래적으로 종교적 존재라는 점에서 늙고 죽는 문제를 떠나 현실의 어떤 즐거움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영원하고 무한한 것을 찾고자하는 인간의 본질은 유한한 현실속에서 고통을 느낄 수 밖에 없다.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영원한 삶을 구하고자 하는데서 진정한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그리하여 종교적 진리는 반드시 이러한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해소시켜 줄 수 있어야 하고 나아가서 육체적인 삶과 정신적인 삶이 분리되지 않는 완전한 합덕의 경지에서 영원해지기를 구하게 된다. 이는 달리 말해서 음양합덕이 이루어지지 못한 세상에서 인간은 피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를 짊어지고 있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둘째로 종교적인 문제를 떠나 현실의 삶에서 만족하고자 하는 인간의 모습에서 우리는 또다른 고통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것은 대표적으로 과학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전개되어 나온 인간의 역사가 이를 대변해준다. 인간은 자칭 과학주의에 입각해서 현실을 분석하고 생활의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 물질에 치우친 삶을 지속시켜 왔다. 하지만 이는 한편으로 환경오염, 식량부족, 자원고갈, 직업병을 유발시켰고, 대량살상무기의 개발로

국가간의 위기감을 조성하며 개인주의의 발달로 인한 핵가족화등은 사회의 무질서와 윤리도덕의 타락현상을 유발시켰다. 이는 모두 지나친 물질주의로 인해서 생겨난 인간의 자기교만때문이며 나아가서 인류전체의 생존에 스스로 위협을 가하는 결과가 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전경』을 보면 다음과 같은 상제님의 말씀이 있다.

상제께서 어느 날 김 형렬에게 가라사대 「서양인 이마두(利瑪竇)가 동양에 와서 지상 천국을 세우려 하였으되 오랫동안 뿌리를 박은 유교의 폐습으로 쉽사리 개혁할 수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도다. 다만 천상과 지하의 경계를 개방하여 제각기의 지역을 굳게 지켜 서로 넘나들지 못하던 신명을 서로 왕래케 하고 그가 사후에 동양의 문명신(文明神)을 거느리고 서양에 가서 문운(文運)을 열었느니라. 이로부터 지하신은 천상의 모든 묘법을 본받아 인세에 그것을 베풀었노라. 서양의 모든 문물은 천국의 모형을 본딴 것이라」 이르시고 「그 문명은 물질에 치우쳐서 도리어 인류의 교만을 조장하고 마침내 천리를 흔들고 자연을 정복하려는 데서 모든 죄악을 끊임없이 저질러 신도의 권위를 떨어뜨렸으므로 천도와 인사의 상도가 어겨지고 삼계가 혼란하여 도의 근원이 끊어지게 되니 원시의 모든 신성과 불과 보살이 회집하여 인류와 신명계의 이 접맥을 구천에 하소연하므로 내가 서양(西洋) 대법국(大法國) 천계탑(天啓塔)에 내려와 천하를 대순(大巡)하다가 이 동토(東土)에 그쳐 모악산 금산사(母岳山金山寺) 삼층전(三層殿) 미륵금불(彌勒金佛)에 이르러 三十년을 지내다가 최 제우(崔濟愚)에게 제세대도(濟世大道)를 계시하였으되 제우가 능히 유교의 전헌을 넘어 대도의 참 뜻을 밝히지 못하므로 갑자년(甲子年)에 드디어 천명과 신교(神敎)를 거두고 신미년(辛未年)에 강세하였노라」 고 말씀하셨도다. (교운 1장 9절)

즉 모든 지상의 문명은 천상에서부터 가르침을 받아 베풀어진 것인데 이를 사용하는 인간이 스스로 물질에 치우쳐 교만에 빠지므로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인류의 위기상황을 조성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역대 신성 불 보살들이 구천에 계시던 상제께 하소연하므로써 널리 천하를 구하기 위해 직접 인세에 강세하시었음을 알 수 있다. 말하자면 인간은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스스로 자초한 과학문명의 폐해(弊害)를 방관할 수 없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결국은 인간적인 교통의 문제에 속하는 것이다.

여기에 음양합덕의 필요성을 절감할 수 있으니 종교가 음이라면 과학은 양에 해당된다. 그런데 종교안에서도 인간이 지니는 죽음의 문제는 결국 상

생으로 음양합덕이 되지 못한 우주의 상극적 현실에서 기인하는 것이며, 과학에서도 문명의 위기는 음양합덕으로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인간정신이 부족한데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리고 종교를 숭상하는 사람은 과학을 등한시 하게되고 과학을 숭상하는 사람은 종교를 등한시 하게된다. 그리하여 바람직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인간의 노력은 항상 종교적 경향에 치우치든지 또는 과학적 경향에 치우치든지 극단적인 과정을 밟아오게 되었던 것이다. 진정한 이상사회는 종교적 이상만도 아니며 과학의 고도성장만도 아닌 음양이 합덕된 사회 즉 종교와 과학이 고도로 성숙된 것과 더불어 이것이 서로 조화된 사회라야만이 인간의 고통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음양합덕을 이룬다는 것은 인간에게 진정한 이상사회를 가져다 주는 것을 말하며 인간이 자신의 고통으로 인해 현실에서 소외되지 않는 진정한 인간존중의 사회를 이룩하는 길이 된다. 이것이 또한 음양합덕이 필요한 이유라고 하겠다.

## IV. 음양합덕의 실현

### 1. 상극에서 상생으로

선천의 상극적인 현실에서는 선악이 공존하므로 선을 택하기 위해서는 그 다름을 피할 수 없다. 더군다나 자연이 상극이므로 고르지 않는 기후와 척박한 땅에서 어떠한 혜택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음양합덕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세계는 오로지 상생으로서만이 지배하므로 자연은 그 자체로 사람에게 이로운 무한한 덕을 베풀어 주게 된다. 여기서 상극과 상생을 음양에 비유하면 상극을 양이라고 할 때 상생은 음에 해당된다. 그리고 선천과 후천을 음양으로 나누면 선천은 양이고 후천은 음이다. 이 때 선천의 양의 세상에서는 1년의 계절로 비유해 볼 때 봄·여름과 같은 시기에 해당되니 상극적인 양의 시대가 지나고 가을과 같은 음의 시대가 도래하면 상생이 될 수 밖에 없다. 즉 앞으로는 상극세상에서 상생세상으로 가는 것이다.

글자 그대로 음양합덕이란 음양이 합해서 무한한 덕을 내려주시는 것으로 이때의 덕은 선덕(善德)을 가리킨다. 그리고 덕(德)은 득(得)으로도 해석되는데 '상생'이라고 하는 덕을 무한히 창조해서 발생시키므로 그야말로 이 세상은 무한한 혜택을 주는 풍요로운 자연의 환경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

먼저 하늘에 있어서는 고르지 않던 기후가 항상 고르므로 더워서 죽는다거나 추워서 죽는 일이 없는 항상 봄·가을(春秋)과 같은 기후가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홍수와 가뭄이 없이 비가 필요한 곳에서는 꼭 필요한 만큼만 내릴 것이며 햇살도 꼭 필요한 곳에 빠지지 않고 쬐일 것이다. 땅에서는 곡식이 만발하여 풍성한 가을이 연상되며 농사를 짓는데도 별로 수고하지 않아도 수확을 거둘 수 있다. 『전경』을 보면

후천에서는 종자를 한번 심으면 해마다 뿌리에서 새 싹이 돌아 추수하게 되고 땅도 가꾸지 않아도 옥토가 되리라. 이것은 땅을 석자 세치를 태우는 까닭이니라.(교법 3장 41절)

라고 하여 음양합덕이 된 후천세상의 풍요로움을 말하고 있다. 모든 땅은 옥토가 되어 한번만 심으면 해마다 추수하게 되는 그러한 무한한 혜택의 장이다. 그리고

또 가라사대 「앞으로 오는 좋은 세상에서는 불을 때지 않고서도 밥을 지을 것이고 손에 흙을 묻히지 않고서도 농사를 지을 것이며 도인의 집집마다 등대 한 개씩 세워지리니 온 동리가 햇빛과 같이 밝아지리라. 전등은 그 표본에 지나지 않도다. 문고리나 옷걸이도 황금으로 만들어질 것이고 금 당혜(唐鞋)를 신으리라.」 하셨도다.(공사 1장 31절)

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의 세상에서 귀중하다고 여기는 금은 보화도 음양합덕이 되게 되면 무한정 베풀어지므로 다만 내·외부장식으로 치장할 따름이다. 산에는 온갖 나무가 푸르러 그 열매를 사람이 따 먹기만 하면 되고 독버섯이나 독초가 없는 몸이 좋은 과일만이 있게 된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풍요롭고 물자가 풍부하여 사람의 마음이 허영과 투기 음해 질투가 없게 되며, 인정과 양심으로 서로 상합(相合)하게 되고 화평(和平)한 세상으로 전개해 나간다. 인간관계를 예로 들면 부부도 음양이니 상생의 덕으로 융합되기에 부부의 금슬이 좋기가 그지 없으며, 거기에 태어나는 아이도 저

마다 건강하고 예쁘며 지혜도 총명하게 된다. 스승과 제자의 사이에서도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가라사대 「선천에서는 상극지리가 인간과 사물을 지배하였으므로 도수가 그릇되어 제자가 선생을 해하는 하극상(下克上)의 일이 있었으나 이후로는 강륜(綱倫)이 나타나게 되므로 그런 불의를 감행하지 못할 것이니라. 그런 짓을 감행하는 자에게 배사률(背師律)의 벌이 있으리라」 하셨도다.(교법 3장 34절)

라고 하여 상생의 덕으로써 대하므로 감히 불의를 행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슬픔의 고통이 있지만 후천세 상에는 천지가 합덕하여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늙을래야 늙을 수 없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그러한 음양합덕의 무한한 덕을 누리게 된다.

후천에는 사람마다 불로 불사하여 장생을 얻으며 궤합을 열면 옷과 밥이 나오며 만국이 화평하여 시기 질투와 전쟁이 끊어지리라.(예시 80절)

후천에는 또 천하가 한 집안이 되어 위무와 형벌을 쓰지 않고도 조화로써 창생을 법리에 맞도록 다스리리라. 벼슬하는 자는 화권이 열려 분에 넘치는 법이 없고 백성은 원울과 탐음의 모든 번뇌가 없을 것이며 병들어 괴롭고 죽어 장사하는 것을 면하여 불로 불사하며 빈부의 차별이 없고 마음대로 왕래하고 하늘이 낮아서 오르고 내리는 것이 뜻대로 되며 지혜가 밝아져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시방 세계에 통달하고 세상에 수·화·풍(水火風)의 삼재가 없어져서 상서가 무르녹는 지상선경으로 화하리라.(예시 81절)

무한히 풍요롭기 때문에 사람사이의 시기와 질투 전쟁이 끊어지게 되며, 정치하는 사람들도 위무와 형벌이 아닌 상생의 조화로서 다스리기 때문에 어떤 원울과 번뇌도 없게 된다. 또 죽어 장사하는 것이 없으므로 불로불사하고 수화풍의 삼재와 같은 자연의 해악이 없어 상서가 무르녹는 환경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후천세상은 한마디로 말해서 지상선경(地上仙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상과 같은 내용에서 음양합덕의 덕은 무한한 상생의 덕을 가리키고 있으며 선천의 상극적 현실과는 판이하게 다름을 알 수 있다. 음양이 그 덕을 합하여 이루어 내는 덕은 대덕(大德)이며 선덕(善德)이다. 상극세상에서 선악이 공존했다면 상생의 후천세상은 선으로써만 존재하는 세상이다. 전경에

보면

지난 선천 영웅시대는 죄로써 먹고 살았으나 후천 성인시대는 선으로써 먹고 살리니 죄로써 먹고 사는 것이 장구하라, 선으로써 먹고 사는 것이 장구하라. 이제 후천 중생으로 하여금 선으로써 먹고 살 도수를 짜 놓았도다. (교법 2장 55절)

라고 하여 상제께서 짜 놓으신 후천세상은 오로지 선으로서만 존재함을 말하고 있다. 그리하여 선덕이 베풀어지므로서 인간에게 무한한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며 영원한 평화를 약속하게 되는 것이다.

## 2. 인존(人尊)의 실현

음양합덕이 이루어졌을 때 누리는 혜택은 무한하다. 여기서 이러한 혜택을 누리는 주 대상은 바로 다름아닌 인간이며 인간이 중심이 된 세상에서 인간을 위한 환경이 베풀어 지는 것도 음양합덕의 주된 목적이 될 수 있다. 천지를 음양에 비유했을 때 천지가 사람을 낳았으므로 천지의 합덕은 인간에게 무한한 풍요로움을 제공한다. 선천에서는 음양이 합덕되지 못하였으므로 천지에 의존해서 살아왔던 것이 사람이었으며 천지가 합덕하여 덕을 베풀 때는 그 모든 혜택을 사람이 받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이 떠받들어지고 사람이 귀해지는 세상이 음양합덕의 후천세상이라고 할 수 있다.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라. 마음을 부지런히 하라.(교법 2장 56절)

천존과 지존시대에는 각기 음양이 고르지 못하여 실제로 인간의 존귀함을 알기 어려웠으며 상대적으로 원망만이 쌓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인존시대는 음양이 합덕하여 하나의 큰 완성을 이루므로 어느 사물하나도 비어있거나 모자라지 않고 꼭찬것을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지해도 꼭차서 누구나 시방세계와 천문지리에 통달하게 되고 하늘도 낮아져 오르고 내리는 것이 뜻대로 된다. 이렇게 되면 천지는 오로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고 온갖 사물도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존재하게 되는 그런 세상이 열리게

되니 이를 인존시대라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음양합덕이 된 세상에는 사람을 해치는 어떠한 것도 존재할 수 없다. 『전경』을 보면 상제께서

이 도삼이 어느날 동쪽으로 상제를 찾아 뵈니 상제께서 「사람을 해치는 물건을 날날이 세어보라」 하시므로 그는 범·표범·이리·늑대로부터 모기·이·벼룩·빈대에 이르기까지 세어 아뢰었도다. 상제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사람을 해치는 물건을 후천에는 다 없애리라」고 말씀하셨도다. (공사 3장 8절)

라고 하여 후천세상에는 오로지 사람을 귀하게 여겨 사람을 해치는 물건이 다 없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인존(人尊)이 가능한 근거는 신과 인간의 관계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즉 신과 인간을 음양에 비유하여 신이 음이라면 인간은 양이다. 신은 그 자체로 불변의 완전한 것이며 사람은 가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신이 이때까지는 천지에 흩어져 존재하다가 음양이 합덕되므로서 완성이 된 사람을 도와 받들게 되는 시대가 되는 것이다. 이를 달리 말하면 ‘신이 사람에게 봉해졌다’(神封於人)고도 한다. 그래서 신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을 필요로 하게 되며 사람과 합덕이 되므로서 비로소 사람은 무한한 조화의 능력을 갖게 된다. 심지어 사람이 신명(神明)위에 위치하여 모든 신명을 통제관장하면서 신명을 시켜 모든 물질적 조화를 창출하게 되니 곧 인존세계의 실상이다.

사람도 완전하고 신도 완전하여서 어느 것하나 빠트릴 수 없이 존귀한 것은 모두 신과 사람이 음양합덕을 이룰때 가능한 현상이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도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상제께서 말씀하시길

옛적부터 상통천문(上通天文)과 하달지리(下達地理)는 있었으나 중찰인 의(中察人義)는 없었나니 이제 나오리라.(교법 3장 31절)

상제께서 태인 도창현에 있는 우물을 가리켜 「이것이 젓(乳) 샘이라.」고 하시고 「도는 장차 금강산 일만 이천봉을 웅기하여 일만 이천의 도통군자로 창성하리라. 그러나 후천의 도통군자에는 여자가 많으리라.」 하시고 「상유 도창 중유 태인 하유 대각(上有道昌中有泰仁下有大覺)」이라고 말씀하셨도다. (예시 45절)

라고 하여 상통천문과 하달지리 그리고 중찰인의의 경지는 모두 음양합덕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사람이 곧 신이고 신이 곧 사람인 세상을 맞이하여 온갖 사물과 천지와 신이 사람을 떠받들어 나갈 때 진정한 인존이 실현되는 것이다. 이것이 곧 음양합덕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도통(道通)이요, 영통(靈通)이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 사람을 만나도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을 것이며 또한 귀해서 누구나 사람을 만나기를 고대하면서 살게 될 것이다. 오늘날과 같은 상극적인 현실에서 생각만해도 가슴벅찬 일이 아닐 수 없다. 여기서 인존의 실현이야 말로 음양합덕의 주된 실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음양합덕의 진리를 이루기 위해 구천상제께서는 인세(人世)에서 9년간의 천지공사를 단행하시게 되었던 것이다.

## V.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음양합덕에 관한 내용은 구천상제의 대순하신 진리를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선천의 상극적인 현실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조리는 바로 음양이 합덕되지 못한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여기에 상제님의 천지공사는 음양합덕을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리하여 상제가 무르녹는 지상선경은 음양합덕을 누리는 세상이며 이 때 인간을 위주로 하는 환경에서 인간에게 무한한 덕을 베풀게 되는 것이 곧 음양합덕의 결과인 것이다. 인간을 위한 세상, 인존의 실현등은 음양합덕이 지향하는 궁극적 진리이며 상생의 진리이다.

기존의 종교는 선악이 공존하는 현실에서 인간으로 하여금 공생윤리를 지니게끔 하였다. 그래서 마음과 뜻이 서로 맞지 않는 사람끼리도 같이 살 수 있게 하고 자연의 파괴도 가능한 한 줄이는데 주력하였다. 이에 따라 자비와 사랑의 실천은 3천년이 넘도록 강조되어 왔고 오늘날도 변함없이 지고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인류의 현실은 그 역사가 반만년이 넘도록 여전히 바람직한 사회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위기감만 더욱 조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종교도 또한 상극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진정한 진리는 선천의 상극적 현실에  
만 국한되어서는 안된다. 나아가 상생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그 상생의 덕  
이 펼쳐지는 세계를 이야기 하여야 하며 또한 이를 이룩할 수 있을 때 비로  
소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진정한 종교인으로서 추구해  
나가야 할 길이 있다.

대순진리는 구천상제께서 인세에 오시므로서 선포하시게 된 사상이다. 이  
를 도주(道主)께서 깊이 통찰하시어 비로소 창도(創道)하게 되었으며, 도전  
(都典)께서는 포덕천하(布德天下)로서 이를 이룩하고자 하시었다. 그리하여  
종지에 먼저 음양합덕을 말하게 된 것은 음양합덕이야말로 내일의 인류가  
맞이하고 살아가는 데 화합의 원리이요 무한한 풍요의 이념이기 때문이다.